우바새들 신행바람 "기대하세요"

수원 용주사 거사회가 지난 3월 27일 용주사 효행문화관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거사불교의 활성화'를 다짐하고 있다.

수원 용주사 3월27일 거사회 창립
전회원 포교사 자격 취득 원력 세워
테마 · 탐방법회, 청소년 포교도 전개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에 거사회가 생겼다.

수원 용주사는 3월 27일 용주사 효행문화관에서 거사회 창립법회를 열고 거사불자의 신행활성화에 나섰다. 40대 남성 신도 30여 명이 의기투합을 했고, 용주사 주지 정락 스님, 기획국장 원오 스님도 거사회 고문과 상임지도법사로 참여해 뜻을 합쳤다.

거사회는 특히 운영방식으로 승 · 재가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 제도를 도입했다. 초창기 조직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원오 스님을 거사회 운영위원장으로 추대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오는 10월에 정기총회를 거쳐 회장단을 출범시킨다. 거사회 운영의 핵심동력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다.

거사회 윤원근 운영위원은 이날 창립법회에서 "사오정, 오륙도 등으로 대변되는 거사들이 여성신도들이 대다수였던 사찰에 '유쾌한 신행바람'을 일으키려고 뜻을 모았다"며 "거사회 출범으로 모든 신도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신행문화를 만들겠다"고 야심에 찬 포부를 밝혔다.

거사회 운영위원장 원오 스님도 "그동안 교구본사임에도 불구하고 거사회가 없어 거사들의 신행활동이 위축돼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거사회가 청년회와 학생회를 연계하는 조직으로서 많은 역할을 맡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거사회는 창립이후 매주 토요일에 정기법회를 봉행, 왕성한 신행활동의 전개한다. 또 '전 회원의 포교사 자격 취득' 운동도 벌인다. 포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열악한 수원 지역 청소년 · 청장년층 포교에 앞장 설 계획이다.

거사회는 이와 함께 야무진 정기법회를 마련해 회원들의 다양한 신행욕구를 만족시킬 방침이다. 매주 한 차례씩 열리는 법회는 참선과 참회, 요가, 산행 등 '테마' 중심의 법회로 이끈다.

산행법회의 경우, 거사회는 전국 108곳 사찰을 찾아 떠나는 '탐방법회'를 열어 한국전통불교문화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법륜종 생전예수재 봉행

법륜종(총무원장 창법)은 3월 24일 논산 지장암에서 '예수시왕생칠재 및 영산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법륜종 소속 전국 1백여 사찰에서 스님 1백여명, 불자 1천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총무원장 창법 스님은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생전예수재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라며 "나보다 가족을, 가족보다 이웃을 먼저 돌아보는 여유를 가질때 삶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나주 미륵사 탱화봉안법회
대웅전 중창등 옛 사세 갖춰

나주 미륵사(주지 원일)는 3월 30일 삼성각에서 탱화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백양사 주지 두백스님을 비롯 지역 사암스님들과 신도 등 100여명이 동참했다.

탱화 점안의식에 이어진 법회에서 주지 원일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미륵사는 예로부터 나주 민초의 정신적 고향으로 대대적인 중창불사를 펼쳐 옛 사세를 갖춰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륵사는 10여년전부터 대웅전, 설법전, 관음전, 삼성각을 복원하고 이날 탱화봉안법회를 봉행했다. **이준엽 기자**

백제불교회관 3주년 법회

대전 백제불교회관(관장 장곡)이 '개관 3주년 기념법회'를 3월 27일 회관 법당에서 봉행했다.

포교원장 도영 스님과 대전불교사암연합회 회장 현광 스님, 백제불교단체협의회 곽무영 회장 등 200여명의 사대부중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장곡 스님은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지상6층, 지하1층의 회관을 신축하는 등 지역불교의 활성화를 위해 백제불교회관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영동 영국사 대웅전 보수

충북 영동군 양산면에 소재한 영국사의 대웅전이 해체 보수된다.

영동군은 현재 안쪽으로 기울어지고 기둥의 부식상태가 심각한 영국사 대웅전을 완전 해체한 뒤 보수공사를 실시해 내년 연말에 완공키로 최근 결정했다.

통일신라시대 진평왕 30년(608년)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국사 대웅전은 부식상태는 물론 기와가 많이 퇴락해 보수가 불가피한 상태.

영국사에는 3층 석탑(보물 제533호), 원각국사비(보물 제534호), 영국사 부도(보물 제527호), 원구형 부도, 석종형 부도 등 미술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남아 있는 사찰이다. **한명우 기자**

일초스님 · 정성길씨
인천시 무형문화재 지정

인천시 문화재위원회는 최근 강화도 청련사의 삼장탱 등을 유형문화재로, 부평 자원사 주지 일초(사진 왼쪽) 스님과 정성길(47 · 사진 오른쪽)씨를 각각 인천수륙재의 기예능보유자와 단청장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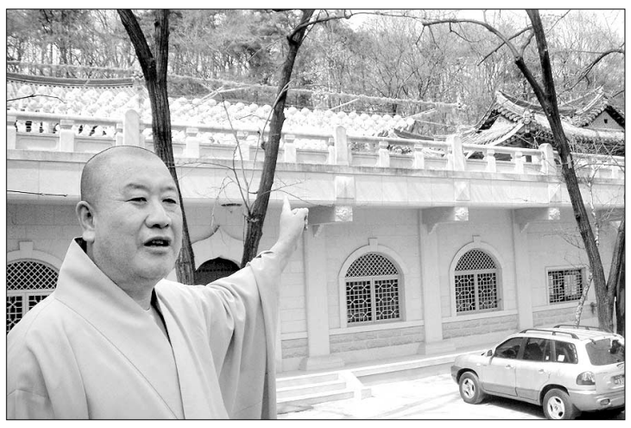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유물은 원통암 감로왕탱, 강화도 전등사 명부전의 지장시왕상(28점)과 시왕도, 전등사 약사전의 석불좌상, 연수구 흥륜사의 대장일람집 권 제7~8과 자치통감강목 제 23 상권 등이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일초 스님은 1967년부터 1980년까지 법주사 등에서 전통 천도재의식을 배우고, 1980년부터 6년 동안은 인천 해광사 등에서 수륙 천도재를 배웠다.

단청장으로 지정된 정씨도 18세에 통도사를 찾아 당시 최고의 단청장으로 꼽히던 혜각 스님 문하에 들어가 단청을 배운 뒤 전국 500여 곳의 사찰 단청작업을 했다. **김주일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서울 경국사



경국사 부주지 종근 스님이 지난해 완공된 천불전 종합 신행공간을 가리키며, 그 위에 지어질 법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명우 기자

성북구 수행 · 포교 1번지로 우뚝

천불전 중창 최고 관음성지 도약
생태교실 · 문화역사 기행 등 진행

경국사는 지금 변신 중.

서울 삼각산 남쪽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7백년 역사의 경국사. 성북구에 소재한 200여 사찰 가운데 포교 1번지로 불리는 경국사가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는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천불전 중창불사가 자리잡고 있다.

경국사는 전각만도 20여 개나 될 정도로 규모가 큰 사찰. 7백년 역사가 말해주듯 전통가람의 면모가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고, 10여 년 전부터는 시대 흐름에 맞춰 포교와 신행도량으로 거듭나면서, 지금은 그 위치를 확고히 다져놓았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공 · 나옹 · 무학 · 태고보우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스님들이 이곳에서 수행과 교화에 힘썼으며, 지금은 한국불교 교학을 대표하는 지관 스님이 주지를 맡아 그 뜻을 잇고 있으니 경국사의 위상을 짐작할 만하다.

경국사가 천불전 중창불사를 시작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역사성을 잇기 위해서다. 주변이 국립공원과 녹지대 등으로 묶여 있어 신행 공간이 부족하다보니 신도들의 수행과 신행에 많은 제약이 뒤따랐고, 삼각산 제일의 관음성지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불자들과 서울 시민의 기도처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도량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천불전은 법당과 수행 및 신행공간으로 나뉜다. 현재 불사가 끝난 수행공간은 시민선원으로 사용될 관음전을 비롯해 회의실, 종무소, 다도실, 신도회 · 거사림회 · 합창단 · 중고등학생회 · 어린이법회 공간이 들어서 있다. 종합신행공간인 셈이다. 법당에는 중앙에 삼존불을 모시고 그 뒤에 수인이 각각 다른 7여래불과 32관세음보살을 비롯해 1천불을 봉안할 계획이다.

"법당 불사까지 마무리되면 경국사는 명실상부한 관음성지로 장엄되고 기도도량으로서의 사격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도들과 불자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경국사의 주인은 바로 신도들과 불자들이니까요."

주지 지관 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의 뜻을 받들어 불사를 주도하고 있는 부주지 종근 스님의 말이다.

관음기도법회, 참회기도법회 등 10여 개의 정기법회를 비롯해 모두 20여 개의 법회가 열리고, 생태교실과 문화역사기행 등 각종 문화교실이 진행되는 경국사. 하루도 쉴 틈 없이 바삐 움직이는 경국사와 종근 스님은 지금 천불전 중창불사를 통해 신행요람이자 최고의 관음성지를 꿈꾸고 있다. **한명우 기자**

33년 전통의 웅변 · 연설 · 설법의 도장

설법대학 제2기 학인모집

33년간 웅변, 연설, 설법, 대중스피치, 화술교육을 통하여 불국정토 구현과 대중화술 보급에 앞장서 온 대한불교웅변인협회에서는 시대의 변화가 요구하는 다양한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종교법인 광명설법대학을 설립 제2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불자님 및 일반인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대한불교웅변인협회 회장 · 종교법인 광명설법대학 학장 **표자원** 합장

모집기간 및 개강일

◇모집기간 : **2004년 3월 12일 ~ 4월 12일**
◇개 강 : **2004년 4월 15일(목) 오후 2시**
◇강의일시 : **매주(목) 오후 2시 ~ 4시**

모집대상

◇포교사 자격 희망자
◇설법을 요하는 스님
◇화술 스피치를 요하는 일반인 및 지도자
◇서예, 동양화, 사군자, 취미 및 전공 희망자
◇학원 설립 및 강사 희망자
◇대학진학 특기 장학생 희망자

제출서류

◇입학원서 (본 대학 소정양식 1통)
◇증명사진 3매

전국 웅변대회 개최

제34회 부처님 오신날 기념 웅변대회
◇일시 : 2548년 5월 16일 오후 1시

교 수 진

불교교리
◇표자원 스님
대한불교웅변인 협회회장.
광명사 주지, 서대문구 사암연합회회장.
◇무진장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전 포교원장.
제2대 불교웅변인 협회회장.
◇표도철 스님
초대불교 웅변인 협회회장.

설법, 웅변, 연설, 화술
◇이종래
대한웅변인협회 전 회장, 국사원 원장.
◇손은봉
MSA스피치 아카데미 원장.
대통령상 수상(웅변부문)

성우, 방송
◇김계원 KBS 성우

서예, 동양화, 사군자
◇지촌허룡
단원전통 한국문인화, 한국미술,
현대미술,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매창 안영자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상 5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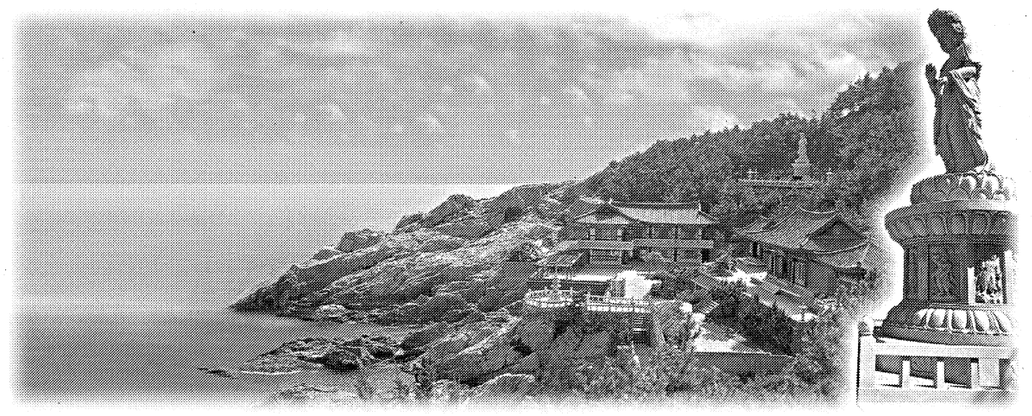
건강의식
◇김기원
진주산업대 새생명광명회 대표.
◇이치란
세계불교도(WFB.WFBY)한국본부
사무총장, 해동불교대학 사무총장.
국제포교사
◇김삼경 박사
자연의학 연구가, 스리랑카 벨라나
국립대학 명예교수.

광명설법대학 전화 : 02)732-5509. 736-1895. 735-1896 팩스 : 02)723-4350
서울 서대문구 홍제2동 44-498 광 명 사 (3호선 무학재역 3번출구)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물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HAE DONG YONG KUNG TEMPLE
전화: 051) 722-7744,7755